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 시나가와 역사관의 정원



▲정원 모습



▲다실 「소테키안」

시나가와역사관의 정원은 1926년 전후에 세워진 야스다 겐스케 저택의 정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중앙에 잔디가 펼쳐지고, 다실※ ‘쇼테키안’과 연못, 수혈주거터 복원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 · 오시마 벚나무 · 사토 벚나무 · 꽃산딸나무 · 곰솔 · 단풍나무 · 후피향나무 · 마취목 · 동백 등 철철이 다른 나무와 화초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밈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원을 산책하면, 도시에서도 고요한 한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시마 벚나무

※다실(茶室)은 다도를 하는 장소로서 마련된 건물입니다. ‘다도’란 무로마치 시대 무렵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통문화로, 차를 끓이고 그 차를 마신다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정신을 차분하게 함과 아울러 전통 예법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 수금굴(水琴窟)

수금굴은 정원의 지하에 만든 굴 안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그 물소리가 굴 안에 부딪혀 되올리는 소리를 즐기는 장치입니다. 굴은 바닥에 구멍을 낸 항아리를 뒤집어서 땅속에 묻고, 안에 잔돌을 넣거나 하여 소리가 되올리기 쉽게끔 고안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되올리는 소리는 지상에 닿을 때쯤에는 희미한 울림이 됩니다. 수금굴은 손을 씻는 물을 담아 두는 수반 근처에 만들어지며, 손을 씻는 물이 적당히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을 씻는 사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문고 소리와 같은 울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나가와구 역사관의 정원 안에도 수금굴이 있는데, 나무 국자로 작은 구멍에 물을 부어 넣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위의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의 한쪽 끝을 작은 구멍에 대고, 반대쪽 끝을 귀에 대고 들어 보십시오. 또한 관내에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를 들려주는 수금굴 모형이 있습니다. 수금굴의 구조도 알 수 있는 모형이므로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금굴

